



한인매일

■ 전화 | 5526-2404 | 5526-5464 ■ CEL | 04455-3563-2158 ■ E-mail : sol6070@gmail.com
■ 은행계좌 ■ Santander | 65-50535887-2 ■ CLAVE | 014180655053588720 ■ HANIN DIARIO SA DE CV

한인매일 연속 보도 탄원서-1

제목 : 이임걸 경찰 영사 측근의 악의적 탄원서 고발

수신 : 대한민국 이철성 경찰청장님 및 황찬현 감사원장님

관련내용 : 멕시코 교민 운영 W주점 사건

적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순간도 이임걸 경찰 영사의 지속되는 모함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양현정의 가족과 대리인 일동입니다. 양현정은 경찰 영사의 업무 능력 부족과 직무 유기의 희생자로 현재 멕시코 Santa Marta 교도소에서 거의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 영사 이임걸은 반성도 없이 양현정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과실을 은폐하고자 피해자 양현정을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습니다. 강제로 일 시키고 돈 안주는 중범죄인 (2016년 6월 7일 다음 포탈), 즉 인신매매의 주범이라며 유사한 허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한 멕시코 여성들에게 2차 보내고 안 간다니 짜르고 그날 일한 돈 안 주어서 그 여성이 연방 경찰에 신고해서 시작된 사건 (2016년 6월 7일 다음 포탈) 이라는 글도 올리며 자국민을 보호하려 파견된 영사가 그와는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라는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지

난 10월 초, 멕시코 현지 공관 국감에서는 마침내 이임걸 경찰 영사가 영사 본인의 업무상 과실이 (법률에 대한 무지와 초기 대응 실패) 양현정의 옥살이 원인을 인정했습니다. 헌법 소원 판결도 증거 없음으로 나와 석방을 목전에 둔 어느 날, 이임걸 경찰 영사가 내용 확인도 없이 자필 서명한 검찰 서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서류로 인하여 멕시코 검찰의 항고라는 불의의 암초를 만나 양현정은 이곳 교도소에서 계속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 영사 이임걸이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서류는 영사 진술서로 멕시코 검찰이 조작한 진술서가 합법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경찰 영사는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본국 외교부에 알렸으며 이

허위 보고가 발각되어 결국 경찰 영사 이임걸이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단초가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경찰 영사의 이 모든 문제는 정확히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 영사는 측근들을 사주해 교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가장한 기만적 내용의 탄원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양현정의 가족과 대리인 일동은 연대 자필 서명으로 동영사 탄원서의 허위를 증명하며 경찰 영사 이임걸의 가장 처벌을 감히 요청 드립니다.

1. (허위 영사 탄원서) 저는 이임걸 영사의 탁월한 교민 사건-사고-민원 해결 역량과 열정적인 의지에 항상 감사해왔습니

다. 이임걸 영사는 부임 이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민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민과 함께했으며 그 결과 직간접적인 조력을 받은 수많은 교민들이 이임걸 영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그에게서 그 어떠한 권위적인 모습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과 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자에게 엄중한 그의 일상 태도를 통해 이전까지는 다소 불신해왔던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 또한 새롭게 만들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

이임걸 경찰 영사는 스페인어는 차치하고라도 전혀 영어도 되지 않

한인매일 신문사 공지문 - 한인매일 신문이 2016년12월29일까지 발행합니다.

2016년 병신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매 해 더욱 어려워지는 멕시코 시장경기에 많은 한인교포들이 몸을 움추리는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 내리라 믿습니다.

처음 멕시코에 사시는 한인분들께 좋은 정보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인매일 신문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까지 한인매일신문을 사랑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더 이상 교민일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한인매일 신문은 한인신문사에 편입되어 주간지로 새롭게 교민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한인매일 신문사는 2016년12월29일자 마지막 일간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인매일 신문사를 아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과 광고주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바입니다.

비록 일간지는 발행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주간 한인매일'로 발행되는 주간지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5년 동안 독자분들과 함께한 시간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매일 신문사 발행인 이만복 배상

환율안내 오늘 오전 1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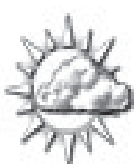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 (Banamex)
Compra 20.30 Venta 21.05
원화 (외환은행)
사실때 1233 / 파실때 1191

멕시코시티 기상 정보

오늘
내일

최고 : 23
최저 : 12

최고 : 17
최저 : 11



<1면에 이어>

영사는 한국에서 경비 업무에 주로 전전했던 관계로 법률적 실무 지식이 전무했고 동시에 해외 파견 근무도 처음이라 멕시코 법원이나 현지 관공서의 민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동했던 공식 통역이 짜증을 내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경찰 영사 이임걸의 이 업무 무능력이 야기한 대표적 희생 케이스가 바로 현재 문제되어 있는 자국민 양현정의 억울한 옥살이 사건입니다.

이임걸 경찰 영사는 영사 조력의 가장 기본인 "인권침해 확인 여부와 이의 제기" 및 "조사와 수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확인하고 지원받는 일"이 정작 어떤 것인지 실제 상황이 닥치자 전혀 시행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식당 업주인 교민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현직까지 경찰 영사가 동행은 했으나 피랍자의 부인이 몸값을 지불하고 구출했으며 정작 영사 본인은 호텔에서 완전 두문불출하여 이를 알게 된 모든 교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센트로 지역 교민 여성 피살 시에는 중무장한 방탄복 차림으로 나타나 평상복을 입은 교민들 사이에서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야 경찰 영사는 교민들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나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굳은 일이다 싶으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며 약자에게는 변변히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일례로 양현정이 아직 검찰에 구금돼 있던 1월 16일 밤, 영사 조력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 측의 통화에 이임걸 경찰 영사는 "제가 거기 왜 가야죠?" 라고 단칼에 거절했으며, 피해 여성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금지 당하며 지병이 있는 여성은 처방 약도 압류 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럼 그냥 쓰러지라고 해요! 거기서 그냥 싸라고 해요!"라면서 무

[한인매일 연속 보도] 탄원서-1

제목 : 이임걸 경찰 영사 측근의 악의적 탄원서 고발
수신 : 대한민국 이철성 경찰청장님 및 황찬현 감사원장님
관련내용 : 멕시코 교민 운영 W주점 사건

식한 표현으로 피해자 측 대리인과 동석한 몇몇 교민들을 경악, 분노케 했습니다. 사실 동 영사 탄원서의 언급처럼 그렇게 완벽한 경찰 영사였다면 자국민 양현정의 억울한 옥살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허위 내용의 영사 진술서"에 대책 없이 서명해 자국민 양현정의 석방을 자국의 영사가 차단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동 "영사 진술서"는 멕시코 검찰의 항고 빌미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실이 어려움에도 여전히 반성은 없고 측근들을 이용해 이 같이 기만적 내용의 영사 탄원서나 만드는 이임걸 경찰 영사는 가중 처벌로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허위 영사 탄원서) W는 한국 언론에 '노래주점' 혹은 '노래방' 등으로 왜곡-축소 보도된 바와 달리, 한국은 물론 북미지역 한인사회에서 끊임없이 적발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해왔던 '한국형 룸살롱'의 형태를 가진 성매매 의혹 업소입니다. 그로 인해 멕시코 검찰 내 인권침해 전담부서의 수사 표적이 되어왔으며 교민사회 일각에서도 여러 각도로 지탄을 받아왔던 업소입니다.

(실제 상황)
거짓말입니다. 멕시코 검찰의 기소 내용 어디에도 동 혐의는 없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한국인 여성 인신매매" 사건으로 조작된 범죄입니다. 멕시코 검찰 내 인권 침해 전담 부서의 표적이 됐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니

다. 표적이 된 것은 맞으나 인권 관련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금전 갈취 대상으로서의 표적이었을 뿐입니다. 한인 여성 몇몇과 한국인 손님 몇몇인 업소에 복면을 쓰고 중무장한 50여명의 검찰 대원들이 단속을 가장 습격했으며 목적이 달성 되지 않자 "인신매매 희생자 한인 여성 구출"이라는 허위 실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한인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한 적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조작된 진술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검찰이 최악의 인권침해와 성폭행 수준의 고문까지 자행하면서 이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만 보아도 인신매매 전담 부서의 정상적 내사가 있었다는 말은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이 동포 업소에서는 알만한 한국 대기업 지사나 법인 직원들도 모임을 가졌으며 가끔 공관원들의 뒤풀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귀찮히는 모 한국 대사의 경우 가능하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도음이 되고자 바로 이 업소에서 평소 가까웠던 교민들과 환송의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고 보면 동 교민 사업장이 "성매매 의혹 업소"라는 언급은 동 탄원서의 실제 작성자 엘코레아노 발행인 임성민과 그의 사주자 경찰 영사 이임걸의 악의적 모함입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닙니다.

3. (허위 영사 탄원서) 이 사건에 멕시코 검찰의 증거 조작과 밀어붙이기 식 기소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내

용이 100% 허구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언급을 자제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주재국 사정 당국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
경찰 영사 이임걸의 측근들이 언급하는 사건 관련 내용은 팩트에 근거함이 전혀 없으며 추측과 가정으로 일관합니다. "멕시코 검찰의 증거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비난은 없습니다. 오직 같은 교민 동포를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멕시코 검찰의 공소장을 직접 본 적도 내용 확인도 없이 그저 전해들은 말에만 근거하다 보니 대부분 모순 투성이입니다. "공소장의 내용이 100% 허구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언급을 자제" 라는 표현은 언어도단이며 동 영사 탄원서가 얼마나 엉터리 인지를 말해 줍니다. "한국인 여성 인신매매" 사건은 100% 허구입니다. 이는 피해자 측의 주장이라기 보다 이미 멕시코 법원의 헌법 소원 판결로도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피해자측에 대한 모함에만 몰두하다 보니 이처럼 모자란 언급만 합니다.

멕시코 검찰이 제시한 동 "인신매매 사건의 증거"는 모두 증거 가치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내용도 모르면서 "주재국 사정 당국에 대한 명예 훼손"등 사건과 동 떨어진 내용만 언급하며 재차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려 합니다.

전혀 반성은 없고 측근을 사주하여 계속 후안무치로 행동하는 경찰



GRUPO-HAMECO S.A DE C.V.

멕시코 한인병원

서울 클리닉

CONSULTORIO MEDICO SEUL



원장 Dr.문장호
(의학박사/전문: CEDULA No.4155018)

상근진료의사

Dr. Jang H. Moon (소화기내과/피부비뇨기과)

Dr. Juan M. Avalos (일반내과/가정의학과)

Dra. Doris F. Jimenez (산부인과/여의사)

내과/외과

소아과/산부인과

피부비뇨

미용성형

한방과

건강상담, 수술상담, 응급처치, 예방접종, CO2레이저, 잡티/점/검버섯/주근깨, 보톡스, 흉터제거술, 여드름치료, 쌍꺼풀/코/미용성형, 포경수술/정관수술/남성확대술, 알부민/영양제주사, 내시경/초음파, 각종혈액검사, 성병검사, 학교진단서, 예방접종카드/서류번역, 산부인과/유방암/자궁암검진(여의사)

외부협진 전문의

심장내과	Dr. J. Cesar Ayllon	(Hosp. Español)
일반외과	Dr. B. Jimenez Bod	(Hosp. Santa Fe)
성형외과	Dr. J.L. Perez Avalo	(Clinica Londres)
정형외과	Dr. Jesus Arellano	(Hospital Laza)
한방과	Dra. Jin Xuan	(중의/중국 정통침)
응급전문	Dr. Marco Antonio Crux	(Hosp. Obregon)

진료시간

평 일 9:30am - 8:30pm

토요일 9:30am - 6:30pm

산부인과, 한방과 예약 요망

TEL / FAX 5208-5448

CEL 04455-1513-7716

공휴일은 전화예약 바랍니다

<http://seulclinic.com>

Londres #227,
Zona Rosa
(Varsovia y Praga)

[한인매일 연속 보도] 탄원서-1

제목 : 이임걸 경찰 영사 측근의 악의적 탄원서 고발
 수신 : 대한민국 이철성 경찰청장님 및 황찬현 감사원장님
 관련내용 : 멕시코 교민 운영 W주점 사건

4. (허위 영사 탄원서) 본 사건은 멕시코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멕시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멕시코 검찰과 업소 W 양측의 문제이지 애초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교민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자칫 주재국 법률을 위반하였을 지도 모를 업소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 외교관 신분인 이임걸 영사의 조력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건 초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

탄원서의 실제 목적이 오직 피해자 측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보니 기본 상식도 없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합니다. 국가의 개입이 아니라 이는 모든 국가가 시행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다 보니 "교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여전히 교민들만 팔고 있습니다. 해당 주재국의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자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영사 조력 제도를 국가의 개입으로 규정하며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지는 개탄할 일입니다.

영사 조력에 관한 멕시코 법률은 포괄적이며 오로지 "변호사의 고유 역할 시행만 제한" 할 뿐 그 외의 모든 영사 조력은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 이는 멕시코의 인권에 관한 법

령이 아주 강력함에 근거합니다. 그럼에도 "이임걸 영사의 조력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며 역시 무지한 추측으로 자국민 옥살이의 실제 책임자 이임걸 경찰 영사를 두둔하기에만 바쁩니다. 사건 초기 경찰 영사는 최선의 노력 대신 직무유기로 일관했으며 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이임걸 경찰 영사는 2016년 1월 16일 오후 3시경 아주 늦은 시각에 멕시코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럼에도 5인의 자국 여성들에게 영사 조력의 가장 기본인 "자국민 접견을 통한 인권 침해 확인"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양현정의 구속 원인 중 하나인 "경찰 영사의 초기 대응 실패"인 것입니다. 경찰 영사가 그 다음 날 검찰에 2차 출두했을 때 애라도 최소한 동 "인권 침해 여부의 확인"과 함께 "허위 진술서의 서명을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자국민 양현정의 구속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영사 조력의 가장 기본인 "인권침해 확인 여부와 이의 제기" 및 "조사와 수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일"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자국민 양현정은 구속 되었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사건 초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영사 측근들의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다 웃을 일입니다. 경찰 영사는, 본인의 초동 대응 실패와 멕시코 법률에 대한 무지가 자국민의 구속 동기였음을 멕시코 공관 국감에서 자인했음에도 측근들의 의견을 가장해 이처럼 본인의 중대 과실을 변호하고 있습니

다. 경찰 영사의 처벌이 가중돼야 할 충분한 이유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허위 영사 탄원서) - 최초 구인된 피해자 5인 여성들 중 1인이 이 영사 2차 출두 전에 이미 서명했다는 사실. 양현정의 구속은 이미 그 1인의 서명으로 결정됐을 수도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법리 증언 있음. 그러나 업주 측은 이임걸 영사의 조력 실패로 결국 남은 4인이 서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양현정이 구속되었다고 주장. 한국 언론들도 이러한 상황을 전하지 않고 '영사의 무능과 태만'으로 논리를 전개함.

(실제 상황)

이임걸 경찰 영사의 2차 출두 전 피해여성 1인이 서명하고 귀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경찰 영사 이임걸의 영사 조력 부재로 일어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찰 영사는 1월 16일 오후 3시경 멕시코 검찰에 1차 출두했습니다. 피해여성 중 1인이 허위 진술서에 서명하고 검찰청을 나선 시각은 같은 날 1월 16일 자정 즈음으로 영사 도착 후 약 8시간이 경과한 다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찰 영사 이임걸이 2016년 1월 16일, 1차 출두만 했지 5인의 자국 여성들을 접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1월 16일, 자국 여성들은 최악의 인권침해와 각종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1인 피해 여성이 지명이 있었음에도 처방 약을 압수했고, 이 여성은 서명하는 조건에 약을 들

려 준다는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먼저 허위 진술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경찰 영사가 자국민 접견이 일체 없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1인의 피해 여성이 서명을 했음은 영사 조력 자체를 방치한 경찰 영사의 치명적 직무유기입니다. 그날 경찰 영사 이임걸이 최소한 자국 여성들을 접견하고 인권침해 여부만이라도 확인했다라면 이 여성이 먼저 허위 진술서에 서명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 탄원서를 작성한 영사 측근들의 주장처럼 "양현정의 구속은 이미 그 1인의 서명으로 결정됐을 수도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법리 증언"이 옳다면 바로 양현정의 억울한 옥살이는 그 1인 여성의 서명을 야기한 경찰 영사 이임걸의 책임으로 정확히 귀결됩니다. 결국 자국민의 구속과 억울한 옥살이의 책임은 바로 경찰 영사에게 있음을 미련한 영사의 측근들이 작성한 동 탄원서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4인의 여성들이 허위 진술서에 서명한 원인은 경찰 영사의 조력 실패라기 보다는 먼저 경찰 영사 이임걸이 영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입수된 공관 공문 문서 번호 KMX/16/157에 의하면 멕시코 검찰의 기만에 의해 경찰 영사가 피해 여성 4인의 서명을 설득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재 진술을 약속했던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를 항의하는 내용이 바로 동 공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 영사 이임걸의 설득으로 4인의 피해 여성들이 서명한 진술서는 조작 내용의 수정 없이 그대로 구속 적부심에 넘겨져 바로 양현정이 구속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 영사 이임걸은 동 1차 진술서의 조작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인 피해 여성들에게 재 진술을 언급하며 동 1차 진술서의 서명을 설득한 것입니다.



빈속송

KOREAN RESTAURANT

시크릿
도레방

설렁탕
뼈다귀 해장국
감자탕
육개장
제육볶음
오징어 볶음
돼지갈비 김치찌개
해물 칼국수
냉이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해물순두부
냉면
돌솥 비빔밥
족발
술국
삼겹살
함박스테이크



“굴보쌈”

하루전 예약필수 / 월, 목, 토

NEW MENU 감자탕/곱창전골/두부김치
반데기탕/어묵탕/부대찌개

주소 : Florencia No.45 P.B
TEL : 9155-4971 CEL : 04455-2109-0965



행복을 만들어 주는... 정성을 다하는...

덴탈 플러스 치과

Dental Plus Clinic

Dr. 박재민

진료 시간

월 - 금 오후 5시~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그 외 시간은 예약으로 받습니다.

진료 및 예약문의

Cel. 04455-1833-2971
jemin_park@hotmail.com

찾아오시는 길



No. 167
4 Piso